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1호
2025 Vol. 6, No. 1, 137 - 161

#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비교

**이교일*, 김지온**, 하은호***, 김은빈*****

이 연구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38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NS 간접접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토대로 비장애대학생의 직접접촉 및 SNS 간접접촉의 상호작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집단 간 차원에서 밝힌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장애대학생과 장애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비장애대학생, 접촉이론, 장애수용태도, SNS 간접접촉, 직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실버복지학과 조교수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학부생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 Ⅰ. 서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시혜나 동정을 넘어, 사회 내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공동체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학교는 성인 초기 단계에 사회적 가치관과 타자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대학생이 대학교에서 다양한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은 개인적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김민경·박재국,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는 개인의 인식을 넘어 사회 통합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비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태도 변화의 기제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했다.

장애수용태도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사회 내 차이를 존중하려는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과의 직접접촉 경험(송수지·김정민, 2008; 김종운·고영희, 2018), 사회적 거리감(Bogardus, 1933; Wilson & Scior, 2015),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SNS 간접접촉(최유숙, 2019; Turner, 2007)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간접접촉으로 인하여 장애수용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Allport(1954)는 이질적인 집단 간의 편견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 공동의 목표, 협동적 상호작용, 권위·법·관습의 지원이라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된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후 Pettigrew & Tropp(2006)는 이러한 조건이 사회적 거리감 감소와 장애수용태도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한 간접접촉은 직접접촉의 대안적 수단으로 간주되며, 그 효과는 개인의 접촉수준이나 기존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집단은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이 동시에 가능한 환경에 위치하므로, 이 두 접촉유형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연구대상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간접접촉의 효과가 개인의 사회적 맥락이나 경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사회적 거리감은 장애수용태도를 설명하는 핵심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미·김유리, 2019; 김혜숙, 2007). 즉, 간접접촉이 장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는 장애인을 얼마나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가에 따라 실제 장애수용태도로 이어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직접접

VOICEYE voiceye.com

촉과 간접접촉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 그쳤으며,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실천적인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동향

비장애인의 장애수용태도에 관한 연구는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먼저 직접접촉 경험과 장애인식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장애수용태도가 직접접촉의 양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송수지·김정민(2008)은 장애인과의 직접적 경험이 '역고정관념' 형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김종운·고영희(2018)는 대학생의 장애인 자원봉사 참여가 장애인식 개선과 긍정적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적절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직접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장애수용태도 향상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직접접촉의 질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장애수용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도 있다. 이소영·이경희(2016)는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형성된 경험이 고정관념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김영미·진혜경(2021)은 장애인과의 직접접촉에 자발성이나 맥락이 결여될 경우 오히려 기존의 편견을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정은 외(2020)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경험에서 비장애인의 시혜적 태도가 강화됨을 보여주며, 접촉의 빈도보다 질과 상호작용 방식이 장애수용태도 형성에 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SNS를 통한 간접접촉과 장애인 인식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 최유숙(2019)은 대학생 커뮤니티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만연하며, 이러한 간접접촉이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나대웅(2023)은 영상 미디어가 장애인을 영웅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재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SNS를 통한 간접접촉이 단순 정보 노출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양상이 직접접촉과는 다른 기

제를 통해 때로는 왜곡된 인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장애수용태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김종운·고영희, 2018),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용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강영심 외, 2020). 또한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장애인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가 나타난 연구도 있다(장대연·이성민, 2024). 특히 사회적 거리감은 장애수용태도를 결정짓는 변수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장애인을 가족, 친구, 이웃처럼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며 이들을 정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종운·고영희, 2018).

대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장애인식에 관한 연구 또한 확대되고 있다. 김민경·박재국(2018)은 대학교에서 형성된 장애수용태도가 향후 사회 전반의 장애수용문화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손성화·강영심(2019)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학교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장(場)이며, 이 시기의 사회적 접촉 경험은 비장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 형성과 사회통합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직접접촉과 간접접촉 중 하나에 집중하거나, 직접접촉의 양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접촉유형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SNS 기반 간접접촉의 빈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 효과가 직접접촉 경험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이 대학생은 장애인과의 직접접촉과 SNS 기반의 간접접촉이 모두 이루어지는 집단이므로, 이들의 접촉 경험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가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 비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 간의 접촉 환경에서 나타나는 장애수용태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Allport(1954)의 이론은 집단 간 편견 해소를 위한 조건과 접촉의 효과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상호작용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수용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론적 틀로 간주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존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질과 심리적 거리감의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장애친화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설명력을 지닌다.

## 2. 접촉이론(Contact theory)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은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서로 다른 집단의 관계를 설명할 때 유용한 이론이다. Allport(1954)는 특정 조건이 갖춰진 구조화된 상황에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접촉이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하에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동등한 집단 지위, 공동의 목표, 집단 간 협동, 권위·법·관습의 지원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집단 간 접촉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접촉이론은 조건을 통해 집단 간 관계의 긍정적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접촉 그 자체로 집단 간의 편견이 해소되거나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경은, 2013).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접촉은 오히려 긴장감과 불안을 초래하며,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므로(Bennett, 2007), 접촉이론은 접촉이라는 행위 자체보다는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 즉 접촉의 유형은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으로 구분된다. 직접접촉은 두 집단이 실제로 만나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Allport(1954)는 집단 간의 직접접촉이 갈등을 해소하고 다른 집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직접접촉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고정관념을 수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관계 개선에 효과적이지만(Pettigrew, 1998), 그것을 지역사회에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다른 집단과 관계를 맺기 위해선 그 집단이 처해있는 환경이나 상황과 같은 사회문화적 이해가 필요한데(윤인진 외, 2018),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와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졌으며, 집단 구성원은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경험에서 얻은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 해석할 단서를 얻는다(황현진 외, 2024). SNS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간접접촉은 접촉이론에서 말하는 직접접촉의 대안으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상호작용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간접접촉은 직접접촉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집단에 대한 초기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간접접촉을 통해 얻은 이미지는 직접접촉을 통해 체험한 경험과 일치할 때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Pettigrew & Tropp, 2006). 즉,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며, 두 접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인식변화와 태도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쪽에 편중된 접촉 경험은 오히려 왜곡된 인식 형성이나 거리감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두 접촉 형태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접촉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관점이 된다.

따라서 접촉이론은 단일한 접촉경험의 효과를 넘어서, 다양한 접촉유형 간의 상호작용과 그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직접접촉과 간

접접촉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Allport(1954)의 접촉이론 관점은 두 접촉유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3. 장애수용태도의 정의

장애수용태도는 장애라는 개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포괄하는 심리적 성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외현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넘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사회 속에서 받아들이는지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즉, 장애수용태도는 장애인을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사회 내 차이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포함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를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포용하는 태도로 정의해 왔다. 강영심·손성화·한민정(2020)은 장애수용태도를 비장애대학생이 장애대학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보았다. 김민경·박재국(2018)은 장애에 대한 태도는 선천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획득되고 변화 가능한 성향임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장애수용을 포용과 평등이라는 사회 가치와 연결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장애수용의 주체가 일관되게 비장애인으로 설정됨으로써, 장애인을 '수용되는 존재'로 대상화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위계적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강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미·진혜경(2021)은 수용이라는 개념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비장애인이 권력을 가진 주체로 기능하며 장애인을 수동적 객체로 위치시킨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를 단순히 '긍정적 인식'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된 사회구조적 권력관계와 비장애 중심주의를 성찰하려는 방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인지·정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되, 그 속에 작동하는 비장애 중심성, 수직적 관계성, 권력 비대칭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를 비장애대학생이 장애인을 일상적·사회적 관계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장애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정서적 반응과 장애인의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인지적 태도의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과의 교류에 대한 개방성,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권리 인정, 정서적 거리감이라는 수준을 포함하여 다른 변수들과 어떠한 관

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4.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근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소수집단에 대한 이미지와 그로 인한 인식은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이예나, 2024). 기존 연구들은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이미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Turner(2007)는 SNS에서의 장애인 표상이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과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간접접촉을 정보접촉의 빈도와 정보가 전달하는 표상의 성격에 따라 정의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SNS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접촉을 'SNS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표상에 대한 비장애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SNS상에서 접하게 되는 장애인 관련 콘텐츠의 노출빈도와 긍정적·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장애수용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감은 특정 대상 집단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정서적 거리를 의미하며(Bogardus, 1933), 타자에 대한 주관적 친밀감, 정서적 반응, 행동적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Huskin, Reiser-Robbins, & Kwon, 2018). Bogardus(1933)는 사회적 거리감을 개인이 타 집단을 얼마나 가까운 사회적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제시하였고, 이후 낙인집단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었다. 사회적 거리감은 일반적으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거리감으로 구성된다. 인지적 거리감은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같은 인식적 반응, 정서적 거리감은 불편감·두려움·혐오 등의 감정 반응, 행동적 거리감은 접촉 회피나 관계형성에 대한 거부 행동을 의미한다(김혜숙, 2007; 김민경·임용재, 2022). 사회적 거리감의 하위 구성요인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상호작용하면서 대상 집단과의 거리감을 형성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감은 차별, 낙인, 배제의 정서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소수 집단에 대한 수용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최원규·박현정, 200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역시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다(Wilson & Scior, 2015).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자신과 유사하거나 수용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며, 이는 포용적 태도와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한상미・김유리, 2019). 반대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은 '타자'로 인식되어, 심리적 배제와 부정적 수용 태도가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거리감을 비장애대학생이 장애인을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에서 얼마나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는지 나타내는 총합적 심리개념으로 정의하며, 이는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가정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수용태도는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 외에도 성별, 학년, 생활수준, 건강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먼저, 성별의 경우 김종운 외(2018)는 여성의 장애인 자원봉사 경험 빈도가 남성보다 높았으며, 이에 따라 여성이 장애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장애수용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웅규 외(2013)도 여성이 남성보다 장애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수용태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강영심 외(2020)와 김민경 외(2018)는 1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의 학생보다 장애 수용태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생활수준 역시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예순 외(2015)는 혼자 거주하는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을 낮게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건강수준은 신체적 활동성과 정신건강 측면 모두에서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Reina(2019)는 비장애인의 신체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된다고 보고하였고, 장대연 외(2024)는 자신의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대학생일수록 장애수용태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건강수준의 향상이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감 등을 높여 타인에 대한 수용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 인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장애인 수용태도는 평균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 인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장애인 수용태도 간의 관계는 차이가 있는가?

#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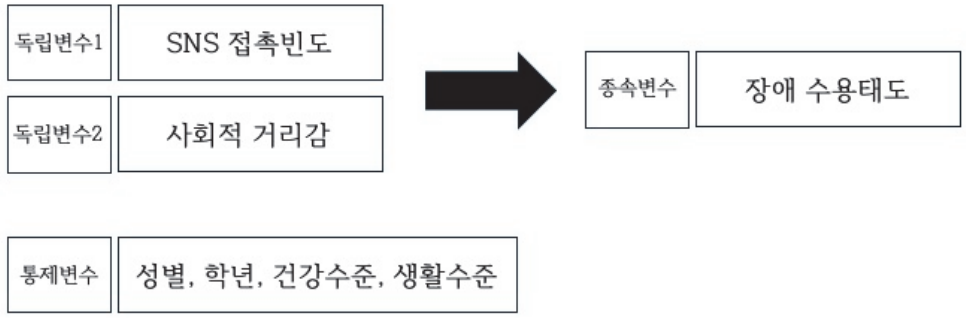
##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는 직접적 접촉뿐만 아니라 SNS와 같은 간접경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접촉의 빈도와 방식은 사회적 거

VOICEYE
voiceye.com

리감과 수용태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대학생 3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접촉 수준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장애인 접촉 수준에 대한 질문은 '귀하는 일주일에 장애인을 어느 정도 만나십니까?'이었으며 '1=매일 만난다, 2=자주 만난다, 3=가끔 만난다, 4=전혀 만나지 않는다'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Allport(1954)의 접촉이론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상호작용은 차별적 태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간헐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접촉(예: 가끔 만난다)은 차별적 태도를 완화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매일 만난다'와 '자주 만난다'를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 '가끔 만난다'와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Luna, et al(2020)의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그룹으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여 '매일 만난다'와 '자주 만난다'를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 '가끔 만난다'와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의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비장애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38)

| 변수 | 집단 | 하위변수 | 빈도 | 퍼센트 |
|---|---|---|---|---|
| 성별 |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 남성 | 88 | 37.8 |
| | | 여성 | 145 | 62.2 |
| |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 남성 | 27 | 25.7 |
| | | 여성 | 78 | 74.3 |
| 학년 |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 1학년 | 76 | 32.7 |
| | | 2학년 | 55 | 23.6 |
| | | 3학년 | 39 | 16.7 |
| | | 4학년 이상 | 63 | 27.0 |
| |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 1학년 | 63 | 59.9 |
| | | 2학년 | 9 | 8.6 |
| | | 3학년 | 11 | 10.5 |
| | | 4학년 이상 | 22 | 21.0 |
| 생활수준 |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 매우 낮음 | 3 | 1.3 |
| | | 낮음 | 27 | 11.6 |
| | | 보통 | 75 | 32.2 |
| | | 높음 | 98 | 42.0 |
| | | 매우 높음 | 30 | 12.9 |
| |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 매우 낮음 | 1 | 1.0 |
| | | 낮음 | 13 | 12.4 |
| | | 보통 | 37 | 35.2 |
| | | 높음 | 44 | 41.9 |
| | | 매우 높음 | 10 | 9.5 |
| 건강수준 |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 매우 건강하지 않음 | 4 | 1.7 |
| | | 건강하지 않음 | 31 | 13.3 |
| | | 보통 | 69 | 29.6 |
| | | 건강함 | 91 | 39.1 |
| | | 매우 건강함 | 38 | 16.3 |
| |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 매우 건강하지 않음 | 2 | 1.9 |
| | | 건강하지 않음 | 10 | 9.5 |
| | | 보통 | 31 | 29.5 |
| | | 건강함 | 49 | 46.7 |
| | | 매우 건강함 | 13 | 12.4 |

비장애대학생의 성별에서는 여학생 223명(66.0%)이었으며 남학생은 115명(34.0%)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39명(41.1%), 4학년 이상이 85명(25.2%), 2학년이 64명(18.9%), 3학년이 50명(14.8%)이었다. 비장애학생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생활수준으로 높음이 142명(42.1%), 보통이 112명(33.1%), 낮음과 매우 높음이 각각 40명(11.8%), 매우 낮음이 4명(1.2%)이었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수준으로 건강함이 140명(41.4%), 보통이 100명(29.6%), 매우 건강함이 51명(15.1%), 건강하지 않음이 41명(12.1%), 매우 건강하지 않음이 6명(1.8%)이었다.

### 2) 연구절차

2025년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NAVER Form)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스마트 LMS에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공유한 후 비장애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응답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의 지인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설문참여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중 참여 가능성을 낮추고자 지역과 대학교를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368명이 참여하였으나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비장애대학생이 아닌 경우,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아닌 30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8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주요변수

### 1) 종속변수: 장애수용태도

종속변수인 장애수용태도는 비장애대학생이 장애라는 현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뜻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iller와 그의 동료들(1969)이 개발하고 이종남(1994)이 번역한 '장애태도 요인분석 척도(Disability Factor Scale: DFS)'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동일시, 추론된 정서장애'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장애수용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써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장애인들은 특정 지역에 그들끼리 모여 살아야 한다.'와 '나는 편견없이 장애인과 데이트를 할 수 있다.'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였다. 장애수용태도는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태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장애수용태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0.856이다.

### 2) 독립변수 1: SNS 간접접촉

SNS 간접접촉은 접촉 빈도와 표상에 대한 묘사와 평가로 측정될 수 있다(Tan, Fujioka, & Lucht, 1997). 이에 이 연구는 SNS 간접접촉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순태·강한나(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접촉'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유튜브와 에브리타임에서 접한 장애인 관련 콘텐츠의 비중과 이미지에 대해 응답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1]. SNS 간접접촉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써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SNS 간접접촉은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SNS 간접접촉의 Cronbach's $\alpha$ 값은 0.745이다.

### 3) 독립변수 2: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은 특정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심리적으로 멀거나 혹은 가까움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이 연구는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정혜영과 서보순(2012)이 사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 문항을 고은과 목흥순(2013)이 일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국가·제도, 일반·생활, 학교·동료, 친구, 가족' 총 5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5점 리커트 척도로써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거리감은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감의 Cronbach's $\alpha$ 값은 0.936이다.

---

1) 이 연구에서 SNS를 유튜브와 에브리타임으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언론진흥재단(2024)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한국」과 김청희·김남두(202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20대는 유튜브를 통한 정보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종임·박진우·이선민(2021)은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에브리타임〉이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 수집 및 교류의 창구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24년 기준 에브리타임의 누적 가입자는 732만명이며, 월평균 251만 명의 학생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대학생활을 공유한다(Platum, 202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와 에브리타임에서 이루어지는 SNS 간접접촉 경험을 측정하였다.

VOICEYE voiceye.com

#### 4) 통제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은 '0=남성, 1=여성'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학년은 '1=1학년, 2=2학년, 3=3학년, 4=4학년, 5=5학년'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5학년의 빈도가 낮아 '1=1학년, 2=2학년, 3=3학년, 4=4학년 이상'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생활수준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매우 높음, 2=높음, 3=보통, 4=낮음, 5=매우 낮음'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수준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매우 건강함, 2=건강함, 3=보통, 4=건강하지 않음, 5=매우 건강하지 않음'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생활수준과 건강수준을 역문항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 4. 분석방법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3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장애수용태도,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수용태도,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Ⅳ. 연구결과

###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다변량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n=338)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왜도 | | 첨도 | |
|---|---|---|---|---|---|---|---|---|
| | | | | | 통계량 | S.E. | 통계량 | S.E. |
| 장애수용태도 | 2.418 | 0.496 | 1.167 | 4.167 | 0.170 | .133 | 0.672 | .265 |
| SNS 간접접촉 | 2.636 | 0.739 | 1.000 | 5.000 | 0.179 | .133 | -0.005 | .265 |
| 사회적 거리감 | 2.052 | 0.667 | 1.000 | 4.150 | 0.449 | .133 | -0.403 | .265 |

이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왜도 범위는 절대값 기준 0.170~0.449이었으며, 첨도 범위는 절대값 기준 0.005~0.672인 것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 가정 조건인 왜도의 절대값 기준 3미만, 첨도 절대값 기준 10미만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장애수용태도는 평균 2.418(SD=0.496), SNS 간접접촉의 평균 2.636(SD=0.739),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 2.052(SD=0.667)로 나타나 주요 변수 중에서 비장애대학생의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다른 변수에 비하여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검증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검증

(n=338)

| 주요변수 | 집단 | n | M | SD | df | t | p |
|---|---|---|---|---|---|---|---|
| 장애수용태도 |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 233 | 2.438 | 0.517 | 336 | 1.097 | .273 |
| |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 105 | 2.374 | 0.444 | | | |
| SNS 간접접촉 |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 233 | 2.686 | 0.759 | 336 | 1.873 | .062 |
| |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 105 | 2.524 | 0.685 | | | |
| 사회적 거리감 | 직접접촉 수준이 낮음 | 233 | 2.139 | 0.689 | 336 | 3.638 | .000 |
| | 직접접촉 수준이 높음 | 105 | 1.859 | 0.572 | | | |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638, p<.001). 구체적으로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M=2.139, SD=0.689)이 높은 집단(M=1.859, SD=0.572)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와 SNS 간접접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비장애대학생의 통제변수와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상관관계분석

(n=338)

| | (1) | (2) | (3) | (4) | (5) | (6) | (7) |
|---|---|---|---|---|---|---|---|
| (1) | 1 | | | | | | |
| (2) | .120* | 1 | | | | | |
| (3) | -.034 | -.010 | 1 | | | | |
| (4) | -.064 | -.047 | .609*** | 1 | | | |
| (5) | -.091 | .006 | -.124* | -.074 | 1 | | |
| (6) | -.052 | .000 | -.066 | -.068 | .666*** | 1 | |
| (7) | -.091 | .210*** | -.100 | -.001 | .342*** | .263*** | 1 |

주 : (1) 성별 (2) 학년 (3) 생활수준 (4) 건강수준 (5) 장애수용태도 (6) 사회적 거리감 (7) SNS 간접접촉
*p<.05, **p<.01, ***p<.001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장애수용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이(r=.666, p<.001)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수용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활수준과 건강수준(r=.609, p<.001)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수용태도와 SNS간접접촉(r=.342, p<.001), 사회적 거리감과 SNS 간접접촉(r=.263, p<.001), 학년과 SNS 간접접촉(r=.210, p<.001), 생활수준과 장애수용태도(r=-.124, p<.05), 성별과 학년(r=.120, p<.05)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장애인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종운·고영희, 2018)와 일치한다.

## 4.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가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가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n=338)

| 종속변수 (장애수용태도) | | 전체(n=338) | | |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n=233) | | |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n=105) | | |
|---|---|---|---|---|---|---|---|---|---|---|
| |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 계수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 계수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 계수 |
| | | B | S.E. | | B | S.E. | | B | S.E. | |
| 상수 | | 1.349 | .133 | | 1.133 | .155 | | 1.855 | .264 | |
| 통제 변수 | 성별 | -.044 | .042 | -.042 | -.013 | .049 | -.012 | -.175 | .082 | -.174* |
| | 학년 | -.009 | .016 | -.023 | -.004 | .020 | -.009 | -.002 | .030 | -.006 |
| | 생활수준 | -.041 | .028 | -.073 | -.026 | .034 | -.046 | -.071 | .051 | -.139 |
| | 건강수준 | .005 | .026 | .009 | -.002 | .031 | -.004 | .016 | .049 | .032 |
| 독립 변수 | SNS 간접접촉 | .117 | .029 | .174*** | .153 | .034 | .225*** | .020 | .054 | .031 |
| | 사회적 거리감 | .457 | .031 | .614*** | .472 | .036 | .629*** | .426 | .063 | .549*** |
| $R^2$ | | .481 | | | .539 | | | .374 | | |
| adj$R^2$ | | .471 | | | .526 | | | .335 | | |
| F | | 51.076*** | | | 43.953*** | | | 9.744*** | | |
| Durbin Watson | | 1.943 | | | 1.941 | | | 2.051 | | |

*p〈.05, **p〈.01, ***p〈.001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VOL, VIF를 확인한 결과 전체 집단의 VOL은 0.618~0.969, VIF는 1.032~1.619,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VOL은 0.591~0.963, VIF는 1.039~1.693,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의 VOL은 0.642~0.965, VIF는 1.037~1.558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각 집단별로 Durbin-Watson을 살펴본 결과 1.941~2.051의 범위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각 집단별로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집단의 회귀식 설명력은 47.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51.076, p<.001).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은 장애수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감($\beta$=.614, p<.001)은 SNS 간접접촉($\beta$=.174, p<.001)보다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수록 장애수용태도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의 회귀식 설명력은 52.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43.953, p<.001).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감($\beta$=.629, p<.001)은 SNS 간접접촉($\beta$=.225, p<.001)보다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감과 SNS 간접접촉은 장애수용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의 회귀식 설명력은 33.5%이었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9.744, p<.001).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독립변수에서는 사회적 거리감($\beta$=.549, p<.001)이었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beta$=-.174,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수록 장애수용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성일수록 장애수용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낮은 집단과 다르게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식이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SNS 간접접촉,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학교 내 장애 친화 환경 조성의 실질적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지지한다. 또한 송수지·김정민(2008), 김종운·고영희(2018)의 연구와 같이 직접접촉의 경험이 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밀접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직접접촉의 수준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절하는 핵심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조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에 따라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SNS 간접접촉과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 직접접촉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거리감만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SNS 간접접촉만을 경험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유숙(2019), 나대웅(2023)의 연구와 일치하며, SNS로 인한 왜곡된 장애 이미지가 사회적 거리감과 부정적 인식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SNS 간접접촉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충하는 심리적 완충지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Pettigrew & Tropp, 2006). 즉, 비장애대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SNS를 통해 형성된 고정관념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NS가 단순히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표현과 커뮤니티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SNS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비장애 중심적 사회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윤형·조은총, 2020). 따라서 SNS 간접접촉의 영향력을 단일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양면성과 복잡성을 인정하

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조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향후 실천 방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접촉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장애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대학 내 장애인과의 실질적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질 높은 상호작용이 편견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근거와도 부합한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일회성 캠페인보다는 공동 프로젝트, 협력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 내에서는 교과 및 비교과 영역 모두에서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장애 학생이 '배려'의 대상이 아닌 상호작용의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대학 내 문화와 환경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적 기반 조성과 동시에, 다양한 접촉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단순히 SNS 기반의 장애 관련 콘텐츠 제공만으로는 비장애대학생의 태도 변화에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왜곡된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 SNS 간접접촉이 갖는 영향력은 이중적이며, 특히 직접접촉이 결여된 환경에서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비판적 미디어 수용 능력 향상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반면, 직접접촉이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심리적 현실감에 의해 해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접촉 경험이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심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Pettigrew & Tropp(2006)의 연구와도 연결된다. 또한, SNS는 장애 당사자에게 자기표현과 정보 공유,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SNS 간접접촉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장애 당사자 주도의 디지털 콘텐츠 생산 지원, 비장애인 대상의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 병행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태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는 위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자연스러운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 지도 아래 수업 시간 내 토론참여, PBL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대학교 교양과정에서 장애 이해 및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학

(Disabliltiy Studies)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SNS상 장애 관련 콘텐츠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올바른' 장애 이미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넘어, 미디어에 재현된 장애가 어떤 권력 관계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도형 콘텐츠와 상호작용 기회의 확대를 위한 캠퍼스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당사자 중심(nothing about us without us)'원칙에 입각하여, 장애대학생이 대학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에 있어 장애 학생들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와 다른 정체성(젠더, 인종,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교차하는 지점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장애 경험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SNS 간접접촉'의 효과가 개인의 직접접촉 경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직접접촉 또는 간접접촉의 개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이 연구는 두 접촉유형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생이라는 성인 초기 단계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장애 수용태도의 형성 과정이 사회적 접촉 경험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교 내 장애 친화 환경 조성의 실질적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는 장애를 단순히 '수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성의 일부로 재해석하는 패러다임적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는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인간 경험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학 문화 조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비확률표집방법 중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하였기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확률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외적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측정한 SNS 간접접촉 경험은 SNS 공간에서 논의되는 장애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의 정서적 속성(긍정적/부정적), 노출의 지속성, 감정적 반응 등의 세부 차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SNS 간접접촉 경험을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정교화하여 장애수용태도 및 사회적 거리감 형성의 차별적 영향을 비교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비장애대학생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장애 대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비장애대학생과의 상호작용 경험이나 수용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VOICEYE voiceye.com

# 참고문헌


강영심, 손성화, 한민정. (2020). 비장애대학생의 장애대학생 수용태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연구, 15**(2), 1-19.

고경은. (2013). 다문화환경 초등학교에서의 접촉이론 적용가능성. **학교사회복지, 25**, 255-274.

고웅규, 박보람. (2013).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비장애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 **장애인복지연구, 4**(1), 117-140.

고은, 목흥순. (2013).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거리감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127-151.

김민경, 박재국. (2018). 비장애대학생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통합교육연구, 13**(2), 49-70.

김민경, 임용재. (2022). 청년층의 사회적 거리감과 장애 수용 태도 간의 관계 분석. **교육사회연구, 32**(3), 99-120.

김영미, 진혜경. (2021).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2), 185-194.

김예순, 백형원, 남영희, 김선용, 김명. (2015). 보건학 전공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2), 185-201.

김종운, 고영희. (2018). 대학생의 장애인 자원봉사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공감능력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919-939.

김청희, 김남두. (2021). [초점] 성별·연령대별 유튜브 및 넷플릭스 콘텐츠 이용행태 분석. KISDI Perspectives, (3), 1-21.

김혜숙. (2007). 사회적 거리감과 편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3**(2), 87-108.

나대웅. (2023). 영상 미디어에서의 장애에 대한 상품화와 인권문제: 영웅적 장애인 재현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4**(2), 98-123.

손성화, 강영심. (2019). 비장애대학생의 공동체의식 유형에 따른 장애대학생에 대한 태도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1287-1304.

송수지, 김정민. (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83-99.

안순태, 강한나. (2018). 소셜미디어를 통한 노인에 대한 간접 접촉이 노인 차별에 미치는 영향: 노인 낙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고PR실학회, 11**(3), 7-29.

윤인진, 송영호. (2018).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회정의와 인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사회, 19**(1), 95-131.

윤형, 조은총. (2020). 장애인 유튜버의 미디어 생산 경험에 관한 연구. **장애의 재해석, 1**(1), 3-51.

이소영, 이경희. (2016).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태도. **정신간호학회지, 25**(4), 384-392.

이종남. (1994).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은, 최보라, 조미형, 이인선, 신형익. (2020).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태도 장벽. **보건사회연구, 40**(2), 151-192.

이예나. (2024). 미디어를 통한 이주민 간접접촉 경험이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53**, 95-122.

이현우, 박영흠, 김선호. (2024).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

장대연, 이성민. (2024). 장애인 가족 내 비장애 형제자매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의 관계: 인지된 장애 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9**(3), 337-344.

정혜영, 서보순. (2012).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117-145.

최원규, 박현정. (2009). 성격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와 행동의도 예측력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63-82.

최유숙. (2019). 대학생 커뮤니티의 혐오표현 양상: C대학 에브리타임 핫게시물을 중심으로. **교양학 연구, 10**(2), 67-89.

한상미, 김유리. (201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수용 태도 간의 관계. **장애와 고용, 29**(3), 97-117.

황현진, 김동욱, 홍상우, 문상호. (2024). 외국 이주민에 관한 직·간접 접촉이 지각된 위협인식에 미치는 영향: 팬데믹 시기 배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4**(3). 133-166.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Bennett, C. I. (2007).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E.* Pearson Education.

Bogardus, E. S. (193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7*, 265-271.

Huskin, P. R., Reiser-Robbins, C., & Kwon, P. (2018). Emotional intelligence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e and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1*, 79-83. https://doi.org/10.1016/j.paid.2018.04.021.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Calif: Sage Publications.

Luna, E., Ruiz, M., Malyutina, S., Titarenko, A., Kozela, M., Rajak, A., Kubinova, R., Bobak, M. (2020). The prospective association between frequency of contact with friends and relatives an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55*(8), 1001-1010. doi: 10.1007/s00127-020-01834-8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65-85.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the contact hypothesis. *Psychological Science, 17*(4), 319-324.

Reina, R., Hutzler, Y., Iniguez-Santiago, M. C., & Moreno-Murcia, J. A. (2019). Physical activity and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43*, 83-93.

Platum. (2024.12.31.). 에브리타임, 2024년 대학생 소통 83억 회 기록. https://platum.kr/archives/249039.

Schiappa, E., Gregg, P. B., & Hewes, D. E. (2005).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Communication Monographs, 72*(1), 92-115.

Tan, A., Fujioka, U., & Lucht, N. (1997). Native American stereotypes, TV portrayals, and personal contac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2), 265-284.

Turner, R. N., Hewstone, M., Voci, A., & Paolini, S. (2007). Reducing prejudice through direct and indirect contact: The mediating role of self-disclos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12), 1635-1646.

Wilson, M. C., & Scior, K. (2015). Attitudes toward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s measured by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 literature review.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7,* 79-85. https://doi.org/10.1016/j.ridd.2015.08.006.

Abstract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Disability Acceptance Among Non-Disability University Students

## :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Level of Direct Contact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Kyoll Lee*, JiOn Kim**, EunHo Ha***, EunBean Kim****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non-disabled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accepta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are influenced by SNS-based indirect contact and social distance, depending on their level of direct contact. Based on Allport's(1954) contact theory, this research explores the interac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contact experiences in shaping disability acceptance attitudes. A online-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0 to March 28, 2025, with non-disabled students enrolled in four year universities in South Korea. Data form 338 participants were analyzed to produce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students with a high level of direct contact with PWD report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social distance compared to those with a low level of direct contact. Second, in the low-contact group, both SNS-based indirect contact and social distan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disability acceptance attitudes. In contrast, for the high-contact group, only social dist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while SNS-based indirect contact was not

* Assistant Professor, Lifelong Education & Senior Welfare, Daegu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Social Studies Education, Daegu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group-level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disability acceptance by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contact based on contact theory. Lastly, it suggests practical strategies for enhancing social interaction between non-disabled university studen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long with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disability acceptance, contact theory, direct contact, indirect contact, social distance, non-disabled university student, SNS**



| 논문 투고 : 2025.04.15. | 논문 심사 : 2025.05.29. | 게재 확정 : 2025.06.16. |
|---|---|---|